

전주시 바이오 헬스케어 추진단 가동

기업·학계·병원·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 학계, 병원, 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추진단을 꾸렸다. 시는 13일 시장실에서 전주형 바이오 헬스케어 비전과 핵심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주 바이오 헬스케어 추진단(단장 채수찬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장)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감염병 위기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전주의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 헬스케어에 주목하고, 향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결정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될 전문가 집단을 꾸리게 됐다.



전주시는 13일 시장실에서 전주형 바이오 헬스케어 비전과 핵심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주 바이오 헬스케어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와 '세계 바이오 혁신 포럼'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현안들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수찬 단장은 "전주시가 인천 송도나 충북 오송에 비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역량을 결집해 차근차근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카이스트 재직 시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정책센터장을 역임한 경험을 되살려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채 단장은 이어 "의대와 약대, 수의대, 치대, 공대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대학교가 있는 만큼 전북대학교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추진위원들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살린다면 바이오산업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올 상반기에 바이오 도시 전주 비전을 발표하는 선포식과 글로벌 제약 트렌드 등을 논의할 세계 바이오 혁신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전

주형 바이오 헬스케어의 마중물이 될 신규 사업도 조속히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한발 앞서 뛰어든 도시들도 있지만 전주만큼 탄탄한 기반을 갖춘 도시는 많지 않다"면서 "탁월한 자원을 지닌 지역대학교와 전주농생명소 재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우수 연구기관과 함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전주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산업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촘촘한 복지·탄소중립 선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복지·환경 분야 6대 추진전략 제시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 녹색전환 미래환경' 비전

전주시가 노인·장애인이 자신이 사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융합형 통합돌봄을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위한 20만 시민교육을 본격화하는 한편, 친환경차와 충전시설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은 13일 신년 브리핑을 통해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 녹색전환 미래환경'이라는 비전과 복지·환경 분야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전략은 △모두가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 △건강하고 풍요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포용도시 구현 △여성·아동이 존중받는 복지환경 조성 △탄소중립 선도적 추진으로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위생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이다.

시는 먼저 모두가 따뜻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내놓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마친 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일거리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을 가동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여성·아동이 존중받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최대 2개소까지 확충하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환경도 개선한다. 방과 후 돌봄공간인 야호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보다 5개소 늘려 21개소로 확충하고, 6세 이하의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 육아나눔터도 4개소로 확대해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와 장애인, 정신질환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융합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75세 이상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건강과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건소와의 협업을 통해 보건의로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시간 안심서비스와 동행지원 서비스 등 생활밀착

시는 탄소중립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민 20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교육에 나서며 동시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 △적진구형 녹색건축물 개선 사업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 시민소독(가정) 연구용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도 보다 확대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440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대상 확대,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3450대 교체, B-C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도시가스 및 전기 히트 펌프로 교체하는 사업 등이 강화된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 녹색전환 미래환경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환경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과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여행업체에 민생회복 지원금 80만원 지급

3월 31일까지 330곳 대상 신청 받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에 민생회복 지원금 80만 원이 지급된다.

전주시는 오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내 여행업체 33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여행객이 대폭 줄어든 실정에서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금 보상에 제외돼 2중고를 겪고 있는 여행업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지원금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체 가운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주시에 본점이 있는 업체에 80만 원이 지급된다. 여행업(종합/국내외/국내) 중

복 등록 업체인 경우 1개 여행업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이메일(bluewin77@korea.kr) 또는 우편(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서약서와 함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통장사본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통장사본 등이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금기형 전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에 감사패

전주시,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통해 무형유산도시 위상 높여 전달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 비전 공감 도서상품권 100만원 기부

전주시는 13일 금기형 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에게 무형유산의 계승·발전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전주가 세계적인 무형유산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공헌했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2019년 취임한 금기형 전 사무총장은 정책 기획과 유네스코 문화 분야, 국제협력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또 각종 포럼과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식지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날 금 전 총장은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의 비전에 공감을 전하며, 소외계층의 도서 이용에 도움을 주겠다고 도서상품권 100만 원을 전주시에 기부했다.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무형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등 전주가 세계적인 무형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과 배려의 마음 또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초등학생 대상 겨울방학 독서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전주시역 도서관 8곳에서 초등학생 27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놀이와 책을 결합한 독서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도서관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총 21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1개 프로그램은 △그림자극 체험 △실뜨기와 목도리 뜨기 △클레이 무드 등 만들기 △3D면 그래픽과 만나다 △나만의 할리우드 컵 만들기 △나만의 보드게임 만들기 △역사 북아트 △강아지 꽃밭 만들기 △겨울을 만나다 팽관틀 등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